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네팔에는 요즘 아름다운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특히 춥고, 낮에는 따사로운 햇살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집 안은 여전히 추워 생활이 쉽지 않아, 장작을 피워 사용하는 난로를 설치해 실내 공기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든 계절이지만, 네팔에서 살아온 지 22년이 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네팔에도 난방 시설이 잘 갖추어 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큩니다.

겨울이 되면서 전기 사용이 늘어나 전기 공급이 예전보다 더 불안정해졌고, 종종 정전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 충전 인버터를 사용했지만, 1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 더 이상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기가 끊기면 손전등을 켜 놓고 가족들이 한곳에 모여 지내다가, 불이 다시 들어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집안의 물건 하나가 고장 나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상황인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네팔 현지인들의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더 나아지는 네팔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네팔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가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2월은 분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가페에서 자라난 이삭이는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한동대학교 동아리 팀인 MNT(Mission and Talent)와 함께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삭이는 이번 선교의 시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크고, 저희 또한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에스더(여, 18세)는 고3 과정을 마치고 현재 한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격하게 되면 내년 3월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준비 과정 가운데 지혜와 평안을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이(주니어, 여, 17세)는 고3을 졸업하고 네팔 트리부번 대학교 부속 대학인 머핸드라 대학 스포츠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현재 주니어 탁구 국가대표로서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이가 건강하게 훈련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이와 수지는 올해 4월이면 고2(College 과정)가 됩니다. 두 아이가 학업에 충실하여 원하는 진로로 잘 진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opes Table Tennis Academy 소식입니다.

- 작년 12월에는 탁구교실을 세운지 2년이 되어 카트만두내에 있는 학교 들과 어르신들이 모여서 2회 흉스 토너먼트 대회를 3일간 개최를 하여 주님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한국에서도 탁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오셔서 대회에 함께 참석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흉스 대회 때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여 탁구대 탁구 마칠 때까지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1월 2일부터 5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WTT Youth Contender & Feeder Vadodara 2026 대회에 저희 흡스의 영이와 히말이 참가하였습니다.

비록 입상에는 들지 못했지만, 세계 각국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과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는 영이와 히말의 모습을 바라보며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흡스 선수들을 더욱 정성으로 돌보며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가페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매주일 찾아오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네팔 현지교회와 연합하여 드렸습니다. 아가페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인데 어려움이 많이 보이지만 열심히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년한해 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한 해도 주님안에서 아가페 가족들과 사역을 잘 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믿고 후원으로 기도 사랑해주신 무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올해도 변함 없는 선교사로서 주어진 사역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며 네팔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아가페와 협력하고 있는 네팔 현지 교회의 건축을 2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팔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저희를 소개받으신 한 권사님께서 현지 교회 건축을 위해 후원을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하게 될 교회는 형편이 매우 어려워, 그동안 저희 아가페 교회에 와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를 이어온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올해 정식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흡스 탁구교실은 교회 안의 공간이 좁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어, 교회 마당을 활용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탁구장이 부족한 네팔 지역에서 작은 대회도 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일에는 이곳이 현지인들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작은 동참이 모이면 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한 소식은,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흡스 탁구교실에서 훈련 중인 저희 딸 영이(17세)와 히말(19세), 그리고 다른 탁구교실 소속 선수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한국으로 탁구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88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신 양영자 선교사님께서 국제 탁구 선교 캠프에 초청해 주셔서 10일간의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중 영이와 히말 두 명은 약 3개월간 추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수들의 매니저로 함께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며, 언제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제목입니다.

1. 3월에 네팔에 총선이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네팔을 사랑하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현지 목회자들이 물질을 죄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아가페의 모든 사역을 돋는 현지 스태프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신실하게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아가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호스텔, 탁구교실, 교회 사역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역하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저희를 믿어 주시고 후원과 기도, 여러 모양으로 동역해 주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16일

네팔에서 장 언순, 고연희 선교사 올림